

# 젊고 밝고 다채로워진 헬싱키 디자인 위크 2021



1

밀라노, 파리에 이어 헬싱키에서도 디자인 위크가 열렸다. 9월 9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헬싱키 디자인 위크는 크게 도심에서 열리는 브랜드, 작가의 전시들과 발리사리(Vallisaari)섬에서 신제품 및 브랜드 론칭을 중심으로 열리는 헬싱키 비엔날레(Helsinki Biennial)로 구성됐다. 2005년 시작한 헬싱키 디자인 위크는 2012년 헬싱키가 디자인 수도로 선정되면서 디자인에 집중할 도시 브랜드링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2014년에는 일 년 내내 도시의 크고 작은 디자인 이슈를 다루는 플랫폼 ‘헬싱키 디자인 위클리’를 론칭하기도 했다. 핀란드의 디자인 신은 작고 조용하지만 근성이 있다. 아르텍이나 이따라 매장만 방문해도 핀란드 건축디자인의 대명사 알바로 알토(Alvar Aalto)는 물론 전설적인 디자이너의 작품을 쉽게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핀란드 디자인계의 뉴 페이스는 선뜻 떠오르지 않는다. 물론 여기에는 자신의 이름을 화려하게 드러내기보다는 묵묵히

제자리에서 사회적 화합과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작품을 선보이는 데 주력하는 핀란드 디자이너 특유의 성향이 한몫한다. 그런데 2021년 헬싱키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됐다. 여전히 저변에는 지속 가능성으로 대표되는 북유럽 스타일과 방식이 깔려 있지만 조명받는 디자이너의 세대가 확실히 젊어졌고, 쇼윈도를 장식하는 컬러가 다양하고 밝아졌으며, 북유럽 너머의 디자인과 예술을 도시로 끌어들이는 시도도 적극적으로 바뀌었다. 패션 분야의 경우 핀란드의 클래식 브랜드로 여겨졌던 마리메꼬가 지난해 겹, 코스, 유니클로 등의 글로벌 브랜드에서 경험을 쌓은 레베카 베이(Rebekka Bay)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영입한 이후 MZ세대 고객 비중이 한층 늘어났다고 한다. 헬싱키는 벌써부터 내년 디자인 행사 준비에 한창이다. 디자인 위크를 포함해 디자인 수도 선정 1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 헬싱키 근교에서 열리는 피스카스 빌리지 아트 & 디자인 비엔날레(Fiskars Village

Art & Design Biennale 2022 등 줄줄이 개최를 앞두고 있다. 17세기에 조성된 피스카스는 한때 핀란드의 공업 중심지였는데 현재는 그 인프라를 기반으로 디자이너, 공예가, 브랜드들이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다. 피스카스 빌리지 아트 & 디자인 비엔날레 2022 큐레이터 명단에 재스퍼 모리슨의 이름이 올라간 게 눈에 띈다. 사실 이번 디자인 위크는 전시장형 행사인 ‘하비타레(Habitare)’가 핀란드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침에 의해 갑작스레 취소되는 해프닝이 있었다. 하지만 반쪽짜리 행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달리 창의적이고 매력적인 디자인 프로젝트가 도시 곳곳을 채웠으며 핀란드와 헬싱키 디자인 신의 현주소를 돌아보기도 부족함이 없었다. [helsinki.designweek.com](https://helsinki.designweek.com), [myhelsinki.fi](https://myhelsinki.fi)

글 신정원 통신원 담당 박슬기 기자

헬싱키 디자인 위크 2021에서 만난  
핀란드 디자인의 뉴 웨이브



디자인부터 과학 분야까지 아우르는 디자인 플랫폼, 글라스하우스 헬싱키(Glasshouse Helsinki)는 디자인, 예술, 패션, 기술, 과학을 아우르는 디자인 플랫폼이다. 1900년대에 지은 백화점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1층은 편집매장과 베를린 독립 서점 ‘Do You Read Me?’로, 2층은 갤러리로 구성돼 있다. 헬싱키 디자인 위크 2021 메인 허브로 지정되어 올해 키워드인 ‘지혜’를 주제로 한 디자인 토크 및 알토 대학교 디자인 팩토리의 <디자인+지속 가능성> <매니페스토.21> <알토 패션 21 Vol.2>를 포함해 총 6개 전시를 진행했다. [glasshousehelsinki.com](https://glasshousehelsinki.com)

볼여보고 만져볼 수 있는 페인트, 커버 스토리(Cover Story)는 올 상반기에 론칭한 핀란드 친환경 페인트 브랜드다. 플라스틱 성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것은 물론 다방면에서 지속 가능성을 고려했다. 시내에 쇼룸을 론칭해 그간 페인트를 살 때면 도시 외곽을 오가야 했던 동선을 줄이고, 페인트 색상 선택의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제 벽에 붙여볼 수 있는 샘플 시트지를 만들고, 컬러 블록을 만들어 빛과 그림자에 따라 달라지는 색상을 미리 고려해볼 수 있게 했다. 헬싱키 디자인 위크 행사의 일부로 쇼룸 소개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coverstorypaint.com](https://coverstorypaint.com)



핀란드가 선택한 올해의 신진 디자이너, 한나 아노넨(Hanna Anonen)은 디자인 포럼 핀란드가 선정한 2021 영 디자이너다. 그가 선보인 밝고 유쾌한 색상의 오브제의 정체는 바로 식물 받침대. 나무 소재이며 형태는 정원이나 공원 울타리의 손잡이, 나사 이음매의 디테일에서 힌트를 얻어 디자인했다. 가구 및 인테리어 제품부터 공간, 그래픽 디자인까지 활동 범위가 무척 넓은 아노넨은 과감한 디자인 방식으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다. [hannaanonen.com](https://hannaanonen.com)

1 글라스하우스 헬싱키의 2층 갤러리.





피스카스 자연이 투영된 오브제, 안트레이 하르티카이넨 핀란드 작가와 디자이너에게 자연은 필연적인 소재다. 헬싱키 외곽의 예술가 마을 피스카스에서 캐비닛 메이커로 살아온 안트레이 하르티카이넨Antrei Hartikainen에게도 그렇다. 나무를 조각칼로 깎아 만든 버섯 모양의 오브제, 물과 공기, 빛의 흐름을 차용한 유리 꽃병에는 핀란드의 자연과 이를 대하는 그의 태도가 투영되어 있다. 헬싱키 디자인 신에서 신뢰도 높은 갤러리인 로칼Lokal이 헬싱키 디자인 워크를 기념해 하르티카이넨을 소개한 이유이기도 하다. antreihartikainen.fi



대놓고 발달해온 핀란드 세라믹, 세라믹 델리 처음엔 사랑 가계인 줄 알았다. 홀리웃 들어간 곳의 정체는 디자이너 테로 쿠이투넨Tero Kuitunen의 첫 개인전 <세라믹 델리Ceramic Deli> 전시장이었다. 가족이 운영하는 도넛 공장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디자이너는 도넛 아이싱 컬러와 촉감, 부풀어오르는 밀가루 반죽, 사람의 손길이 더해진 형태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이번 컬렉션을 완성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가공식품인 소시지 모양 오브제와 그 오브제를 붙여 만든 소시지 거울 같은 제품도 이전 핀란드 디자인 신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뉴 웨이브다. terokuitunen.com



하이엔드 조립식 가구의 등장, 바스타 높은 완성도가 특징인 핀란드 가구계에 흥미로운 스타트업이 등장했다. 가구 디자인계의 테슬라를 꿈꾸는 바스타Basta가 그 주인공. 바스타의 첫 주력 제품은 다름 아닌 소파다. 단 5분 만에 조립을 마칠 수 있을 정도로 과정을 간소화되고 품질 소재를 사용해 지속 가능성을 추구한다. 헬싱키 디자인 워크 기간 동안 바스타가 진행한 오픈 스튜디오 행사에는 누구든 방문해 소파의 조립 과정과 재료를 자유로이 경험할 수 있었다. 원 노르딕One Nordic과 험닷컴Hem.com에서 경력을 쌓은 조엘 로스Joel Roos와 스테판 말베르크Stefan Mahlberg, 무이Mooui의 마르셀 반더스가Marcel Wanders가 공동 창립했다. basta.co



바다로 연결된 인간과 예술에 대한 탐구, 헬싱키 비엔날레 국경이 닫힌 팬데믹 시대에도 예술적 교류는 멈추지 않았다. 헬싱키 근교의 발리사리섬에서 열린 첫 헬싱키 비엔날레가 그 증거다. 40개국에서 온 작가들의 작품이 숲, 바다, 빈 건물 앞뒤로 설치됐다. 올해 주제는 '같은 바다(The Same Sea)'로, 지구에 공존하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헬싱키 항구와 발리사리섬 사이의 바다는 마치 예술 세계로 들어가는 다리 같았다.